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관리 시범사업의 개요

조성희 (대구효성가톨릭대)

영유아기는 특히 두뇌완성, 신체의 제반 조절기능 및 사회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영양공급에 큰 영향을 받고, 또 영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일생에 걸쳐 이어지므로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유아기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영양상태 불량, 빈혈 등이 신체성장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과 지적, 정서적 발달을 지연시키며 널리 알려져,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관리 강화가 필수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내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영양관리는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균형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급·간식 프로그램이 없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만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나마 공동관리의 한계범위 없이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영양사 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85%를 차지하는 10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와 보건소 등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보육정보센터의 영양사 배치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경우도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위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이들 시설의 보육 추정 이동수가 2-3년내에 6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보육아동의 평생건강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영양관리가 시급해졌다.

따라서 본 사업은 현재 영유아의 급식과 식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영양전문인인 영양사에 의해 원아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판정함은 물론, 합리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의 영양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영양사회의 지원하에 경기, 대구, 광주 지역 각 2곳의 시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총괄책임자와 연구책임자의 관할하에, 연구원이 관리자가 되고, 시설에 배치된 영양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급식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에서 개발한 보육시설 급식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시범사업 해당 보육시설(단독급식관리 시설 2곳 및 공동급식관리 시설 4곳)의 급식현황에 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에 맞게 조정된 급식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영양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